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정유사 폭리와 정부의 과도한 세금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휘발유 소비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1당 1천원이면 비싸다고 했지만, 좋은 시절의 예기입니다. 일부 주유소에서 이미 1천700원을 돌파했다고 들립니다. 더욱이 최근 국제유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내리지 않았다 해서 아우성입니다. 국내 원유소비량의 전량을 수입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비난의 화살을 정부와 정유사에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으로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유사에 대한 소비자의 시선이 굵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정유사가 소비자가격을 즉각 올리지만, 내릴 때는 쥐꼬리 만큼 내린다는 원성이 자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소비자가 내리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느리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원·달러환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값은 큰 폭으로 뛰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여수산업 단지의 한 정유공장.

1 소비자가격 왜 오르나요?

최근 원달러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깨며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원유 수입가격이 낮아져 휘발유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기름값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값은 1당 평균 1천532.98원이고, 정유는 1당 1천236.28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가격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1당 1천700원에 육박한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휘발유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소비자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지나치고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은 아시아 지역 휘발유 값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 연동돼 있습니다. 지난 3월 첫째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값은 배럴당 74.97달러였습니다. 5월 중순에는 배럴당 86.52달러로 15.4%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세전(세금을 붙이지 않은) 공장도 값은 1당 514.26원에서 600.62원으로 16.7%나 상승했습니다. 즉 정유사들이 출고과정에서 매출의 1.3% 정도의 마진을 더 취한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달러당 951.4원에서 925원으로 2.7% 떨어졌습니다. 그러

환율 하락분 출고가 반영 안고 정유사 이윤 흡수 한국 年 8억 배럴, 미·일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

나 정유사들은 환율 하락분을 출고가에 반영하지 않고 이윤으로 흡수했습니다. 결국 출고가의 4% 정도를 정유사들이 더 챙겨가고 있는 셈이죠. 국내 유가에 과도한 세금이 붙는 것도 비싼 기름값의 원인이 됩니다. 교통세와 교육세·주행세·부가세 등이 줄레줄레 붙고 여기에다 유통마진이 더해져 휘발유 1L 를 600원 주고 살 때 세금은 900원 가량 내게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잡힌 나라들 가운데 우리보다 휘발유값이 비싼 곳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터키·영국 정도입니다.

2 국제유가 왜 상승하나요?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을 보면 최근 배럴당 55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배럴당 20달러 이상, 60% 이상 오른 셈입니다. 미국 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중질유의 경우 요즘 배럴당 60달러를 넘고 있는데, 1년 전에 비해 45% 올랐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나 할까요?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여러 가지 악

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경우 전 세계 성장률이 5.1%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도 4%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세가 계속되면 전 세계 에너지원의 34%를 차지하는 원유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 등 주요 원유생산지역인 중동지역의 불안과 미국의 허리케인 등 잦은 자연재해도 유가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 세계적인 금리에 따른 풍부한 자금과 투기세력이 원유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유가급등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3 원유 수입 얼마나 되나요?

세계 석유매장량은 1조 1천886억 배럴로, 채굴이 가능한 연수는 4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의 22.1%를 점유해 1위이며, 이란(11.1%)·이라크(9.7%)·쿠웨이트(8.3%)·UAE(8.2%)·베네수엘라(6.5%)·러시아연방(6.1%)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8억배럴 정도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유 소비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경제규모가 11위인 점에 비추면 상대적으로 많은 원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유 소비량이 큰 이유는 아직은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과 같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도 있습니다.

4 원유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제 원유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그리고 산유국과 직접적으로 장기계약을 하는 기간계약시장입니다. 비중으로 살펴보면 대략 현물시장이 35~40%, 기간계약이 60~65% 정도입니다. 국제 원유거래에서 산유국들은 물량을 결정할 뿐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현물시장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가격기준을 토대로 품질에 따라 얼마를 더하거나 빼는 계산방식이 미리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제거래시 가격기준이 되는 대표 유종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생산되는 원유인 두바이유, 미국의 서부텍사스에서 뉴멕시코에 이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서부텍사스 중질유, 그리고 영국 북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 세 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거래되는 석유가격은 두바이유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를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결정됩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휘발유 1.0 당 세 조건까지는 600원, 여기에 붙는 세금인 교통·주행세 등 900원이 넘습니다

고유가에 대체에너지 급부상

바이오 디젤 혼합유 개발 태양열·풍력발전소 건설 신재생 에너지 확보 전쟁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캐나다 앨버타주 오일샌드 개발참여와 해외 해상광구 입찰참여 등에서 보듯 원유 및 대체자원 확보 노력이 국가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행에 들어간 바이오 디젤 혼합유 판매처럼 신 재생에너지 개발작업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4년간 이어진 동해 탐사에 울릉분지 일대 등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해 시추작업과 상업생산을 위해 내년까지 667억원을 투입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태양열, 풍력과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점차 가속도가 붙는 추세입니다. 해양에너지 실용화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5년간의 1단계에 이어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진도와 해남군 사이 울릉도 조류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1천kW급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까지 시험발전소를 완공한 뒤 여기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까지 5만kW 이상급 상용 조류발전소를 세울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화호에도 25.4MW 용량의 터빈발전기 10기를 통해 연간 55만2천700MWh를 발전하는 조력발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풍력발전도 이제는 바람이 많은 곳이면 언덕 곳곳에서 합쳐 붙어가는 발전기의 거대한 날개를 보는 것이 드물지않게 됐습니다. 지난 1월 현재 전국적으로 중·대형 풍력발전기 124기(시설용량 19만1천70kW)가 설치돼 있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높은 일사량과 적절한 풍량을 확보하고 있는 전남 서남해안 지역은 태양광발전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활용률은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IEA의 자료(2003년 기준)에 따르면 나라별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핀란드가 23%, 캐나다 15.8%, 덴마크 11.1%, 프랑스 7.0%, 미국 4.5%, 일본 3.1%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3% 수준인 대체에너지 비중을 오는 2011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미국은 2010년경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며, EU도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중을 12%까지 높여야 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대인동상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세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알파공인중개사, 특급상가 매매·임대.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features.